2018년 10월 3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연말 랠리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트럼프, "중국과 위대한 합의에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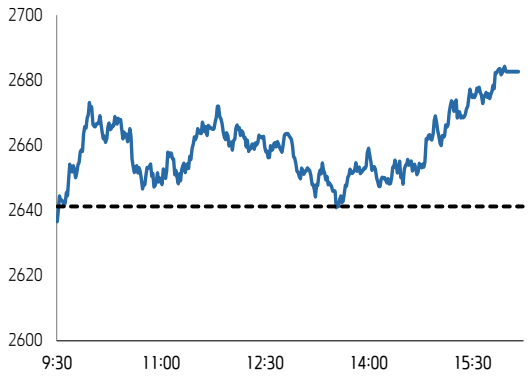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10 월 들어 나스닥이 12.17% 하락(30 일 기준)하는 등 2009 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낸 여파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 다만,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대형 기술주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상승폭은 한때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폭 재차 확대(다우 +1.77%, 나스닥 +1.58%, S&P500 +1.57%, 러셀 2000 +1.99%)

전일에 이어 아마존(-0.55%)과 알파벳(+1.43%), MS(-0.12%) 등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 전일 하락은 IBM(-3.54%)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레드헷을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투입비용을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급락. 여기에 29 일(월) 영국 정부가 2020 년 4 월부터 글로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영국에서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는 소식도 하락 요인. 오늘도 관련 세금 이슈와 IBM 의 레드헷 인수 이슈가 여전히 영향을 주며 관련주 하락 지속. 다만 장 후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되거나 상승 전환 성공.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 11 월 29 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 관련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전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2,570 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 시장참여자들은 중국 정치 특성상 미국의 요구처럼 구체적인 합의안을 중국이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어 합의는 난항에 이를 것으로 예상. 만약 29 일 타결이 되지 않으면 12 월에 미국은 구체적인 추가 관세 일정을 발표하고 2019 년 2 월 춘절을 앞두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 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14.69	+0.93	홍콩항셍	24,585.53	-0.91
KOSDAQ	644.14	+2.29	영국	7,035.85	+0.14
DOW	24,874.64	+1.77	독일	11,287.39	-0.42
NASDAQ	7,161.65	+1.58	프랑스	4,978.53	-0.22
S&P 500	2,682.63	+1.57	스페인	8,806.10	-0.17
상하이종합	2,568.05	+1.02	그리스	636.65	-0.53
일본	21,457.29	+1.45	이탈리아	18,998.80	-0.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약세 지속

아마존(-0.55%), 알파벳(+1.43%), MS(-0.12%) 등은 IBM(-3.54%)의 레드헷(+0.22%) 인수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영국의 인터넷 관련 업종에 대한 세금 부과 또한 부담을 줬다. GE(-8.78%)는 배당금을 축소 발표와 증권 당국의 회계 관행 조사로 급락 했다. 엘러간(-7.55%), 화이저(-0.79%)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반면, 코카콜라(+2.52%)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보잉(+4.27%), 캐터필라(+3.05%) 3M(+2.16%) 등 산업재와 나이키(+3.21%), GM(+1.24%), 포드(+1.94%)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섞인 발언에 힘입어 상승했다. 인텔(+5.20%), 마이크론(+3.89%), 브로드컴(+4.50%) 등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 매출 증가 소식이 나오자 상승 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2.91%)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 보다 감소하며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자 시간 외로 하락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2% 내외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14%	대형 가치주 ETF	+1.63%
에너지섹터 ETF	+1.81%	중형 가치주 ETF	+1.61%
소매업체 ETF	+2.86%	소형 가치주 ETF	+1.79%
금융섹터 ETF	+1.73%	배당주 ETF	+1.34%
기술섹터 ETF	+1.12%	변동성 ETF	-3.38%
소셜 미디어업체 ETF	+2.92%	대형 성장주 ETF	+1.61%
인터넷업체 ETF	+2.13%	중형 성장주 ETF	+2.33%
리츠업체 ETF	+1.66%	소형 성장주 ETF	+2.17%
주택건설업체 ETF	+5.03%	신흥국 고배당 ETF	+2.16%
바이오섹터 ETF	+0.99%	신흥국 저변동성 ETF	+1.50%
헬스케어 ETF	+1.07%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34%	물가연동채 ETF	-0.27%
반도체 ETF	+4.25%	Long/short ETF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4.41	+2.30%	-3.09%	-13.24%
소재	324.31	+2.26%	-0.53%	-12.00%
산업재	582.72	+2.01%	-3.38%	-12.54%
경기소비재	818.63	+1.23%	-3.87%	-11.30%
필수소비재	571.61	+1.97%	+2.03%	+2.44%
헬스케어	1,024.73	+1.11%	-1.90%	-7.37%
금융	429.71	+1.60%	-0.03%	-6.58%
IT	1,187.29	+1.16%	-3.75%	-10.62%
커뮤니케이션	147.78	+2.49%	-3.89%	-7.95%
유틸리티	275.55	+0.29%	+0.68%	+2.09%
부동산	201.11	+1.67%	+2.96%	+0.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삼성전자 실적 발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2.06% MSCI 신흥 지수는 1.95% 상승 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079 계약)에 힘입어 1.10pt 상승한 263.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8.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 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10 월 들어 급락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6% 급등하는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일정 정도 반영이 된 재료라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하자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여파로 시간외로 2% 내외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후 FANG 기업들도 시간 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이러한 대외 변수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는지 여부와 IM 분야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한편, 삼성전자 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실적 발표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지표 개선

10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35.3) 보다 개선된 137.9 로 발표되었다. 현재 여건(169.4→. 172.8), 기대지수(112.5→114.6) 모두 상승 했다. 고용시장 안정과 임금 상승 효과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8 월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에 그쳐 지난달 발표치(yoy 5.9%)를 하회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부 지역 특히 라스베가스가 13.9% 급증했다. 그 외 지역은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속에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이란의 원유 수출이 이어지며 하락했다.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향후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었다. 특히 IEA 사무총장이 "높은 유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향후 원유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언급 한 점도 부담이 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 및 주식시장 강세, 유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는 ECB 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매파적인 통화정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약해졌다는 점이 유로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메르켈 총리의 당 대표 사임으로 독일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이었다.

국채금리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자 상승 했다. 이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향후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유로존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증가에 그치고, 미국 주택가격 또한 전년 대비 5.5% 상승에 그치자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유로존 성장률 둔화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1.12%, 철근도 1.1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66.18	-1.28	-0.38
브렌트유	75.91	-1.85	-0.69
금	1,225.30	-0.19	-0.93
은	14.462	+0.14	-2.24
알루미늄	1,967.00	-0.86	-1.70
전기동	6,032.00	-2.08	-2.65
아연	2,550.00	-2.75	-4.46
옥수수	364.75	-0.55	-1.49
밀	499.75	-1.48	-1.82
대두	847.00	-0.62	-2.76
커피	112.40	-1.62	-7.18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6.977	+0.41	+1.06
EUR/USD	1.1346	-0.24	-1.09
USD/JPY	112.97	+0.53	+0.47
GBP/USD	1.2709	-0.66	-2.11
USD/CHF	1.005	+0.31	+1.02
AUD/USD	0.7104	+0.69	+0.25
USD/CAD	1.3119	-0.11	+0.26
USD/BRL	3.6944	-0.69	-0.01
USD/CNH	6.9745	-0.01	+0.52
USD/KRW	1139.20	-0.19	+0.14
USD/KRW NDF1M	1138.80	-0.38	+0.35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13	+2.83	-5.44
한국	2.222	+6.20	-8.50
일본	0.122	+1.20	-3.00
독일	0.369	-0.80	-4.0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565	+2.40	-9.50
포르투갈	1.879	+1.00	-12.20
그리스	4.230	+4.80	-6.00
이탈리아	3.472	+13.70	-11.70